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책임행정원
2. 출장기간: 2011.9.6 ~ 9. 8
3. 출장지: 중국 북경
4. 출장목적: 중국 북경사무소 운영현황 실태 및 업무지원 현황 파악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2011.9.6	김포→북경	09시30분 김포 출발 10시35분 북경 도착 북경사무소 운영 실태 점검 및 업무지원 현황 파악	
2011.9.7	북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삼성경제연구원 북경사무소 운영현황 조사	
2011.9.8	북경→인천	북경내 유관 기관 현황 및 본원 북경사무소의 업무개 선방안 협의 협의 18시 15분 북경출발 21시 10분 인천 도착	

Ⅲ. 활동 내용

□ 9월 6일(화)

1. 출국(KE 2851) 09시 30분

2. 북경 도착 10시 35분

3. 14시 ~ 18시

북경사무소 운영현황 및 업무개선방안 협의

가. 2010년 북경사무소 예산집행 증빙 점검

- 주요 점검 및 논의 내용

· 분기별 정산시 총괄표와 세부내역 일치

매 분기 정산서류 발송시 총괄표와 세부집행내역들의 금액이 불일치하여 서류 점검에 애로사항이 있어 분기별 정산서류 최종 점검시 각별한 유의 필요

· 예산집행시 근거에 준한 집행

현지인의 통신비, 교육비 등은 지원 근거가 없이 집행되고 있음. 추후 대외 감사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향후 지급 근거에 대한 결재 후 집행함이 타당함.

- 사업비에서의 택시비 사용 과다

본원의 대외활동승인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택시 이용에 대한 대외(외부)활동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함이 타당함.

- 예산지원 불가 항목에 대한 사용 자제

예산에서의 지원이 불가능한 각종 성금을 사무소 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었음. 개인이 부담하는 성금이외 사무소 예산에서의 지원은 불가함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

- 경비 정산시 기준에 준한 서류 미비

각종 세미나, 포럼 등 행사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사례비 지급·정산시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됨. 향후 정산시에는 신분증 등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요청

- 새로운 사업비목에 맞게 정산 요구

2011년부터 연구회의 예산비목이 개정되어 개정된 비목에 맞게 경비 정산 요구(담당자간 협의

완료)

· 각종 임차료 현지화로의 개정 필요

현재 북경사무소에 지원되고 있는 諸 임차료(사무실, 주택, 차량)가 달러화로 지급되고 있어 중국의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운영에 애로가 있어 동 임차료 경비에 대해 현지화로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사무실의 경우 현재 현지화로 지급하고 있음.)

나. 2011년 사업운영 관련 업무협의

- 사업비 기준 현실화 및 증액 요청

북경사무소의 인건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각종 사업성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증액(20%) 요구에 대해 매년 발생하는 이월금 규모 및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함을 협의함.

다. 2012년 예산 요구 관련 업무협의

기획재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2년도 예산 요구와 관련하여 북경사무소에서 요구한 2012년 예산의 전액이 불인정되어 이에 대해 향후 북경사무소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라. 기타

- 파견 직원 과세 문제 논의

중국 당국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금이 대표 교체시마다 발생하고 있음. 중국 당국의 과세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논의함. 즉, 국내 소득 중 일부분(인센티브)은 국내에서 신고하고 기타 금액은 북경사무소로 송금하여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함.(타 기관의 운영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지인 급여 관련

현재 채용된 2명의 인력 중 1명은 경력직으로 이에 대한 보상(경력 인정) 및 현지인의 상여금

인상(200%→300%)을 요청함. 현지인의 경우 타 기관에서도 운영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경력 인정 및 상여금 인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현지 직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9월 7일(수)

- 10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경사무소 방문, 정청길 대표 면담 및 업무협의

농경연은 대표와 현지인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제 수당 등이 연구원보다는 다소 적은 실정이나 농경연 대표가 사무소 운영에 대해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함. 특히 현지인에 대해 자질 부족 및 운영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언급함.

- 14시~15시 30분

KOTRA 북경사무소 박한진 부관장 업무협의

KOTRA의 경우도 현지인 운영 및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행사시 중국 현지인의 사례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많은 협의가 있었음. 일정 수준 이상의 인사 초청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음. 이는 국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경쟁으로 인한 요인도 크다고 느껴졌음.

- 16시 30분~18시

중국 삼성경제연구원 유진석, 권성용 수석연구원 면담 및 업무협의

KOTRA와 마찬가지로 인력규모나 예산 등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음. 그룹 본사에서조차 유일하게 중국에 연구원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

□ 9월 8일(목)

- 10시~12시

본원 북경사무소 소장, 대표와 유관기관 면담 결과 및 향후 업무개선방안에 대한 업무협의

점검 결과 및 타 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북경사무소의 예산 증액, 본원 지원 등 업무개선에 대해 논의

- 18시 10분 귀국(CZ315)

IV. 향후 북경사무소 운영방안

- 북경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내년도 사업확대 및 예산 증액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 전액이 삭감되어 정부출연금으로서의 사업, 예산 지원, 확대는 어려움.

- 사업별, 항목별 확대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은 매년 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이월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임.
- 이월금(매년 3월말 연구회 이사회 결정)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동 금액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우선 순위 논의 후 증액 지원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월금의 가변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에 완료되는 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